광주전남연구원 시스템 대폭 개선한다

연구과제 선정부터 평가까지…정책과제 수요조사 연 2회
조직개편·경영개선 등 장기 발전방안도 조만간 수립

지난 2016년 출범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연구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광주일보 2월 13~15일 1~5면 보도)과 관련 광주전남연구원이 자체 개선안을 내놓았다. 광주·전남의 상생을 근간으로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연구 과제 선정부터 평가에 이르는 절차를 보다 세심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또 조직 개편, 경영 개선 등 장기 발전 방안을 담은 계획도 조만간 수립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6일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개선안을 마련해 광주시, 전남도와 협의한 뒤 4월 안에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크게 연구과제 선정 등 심사기능, 연구과제 결과물 평가 및 피드백 부분으로 나뉜다.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연구과제에 대한 착수·중간 연심회는 담당 공무원, 전문가, 최종 연심회는 외부전문가까지 참여시키고, 정책과제인 경우 수요조사를 1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려 시급한 현안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했다.

발굴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광주시, 전남도 등 실무부서와 사전 교차검토하고, 정책과제의 경우 과제 담당 부서장이 최초·최종보고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정책 및 지원과제가 끝나면 수요자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규 도입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 근무평가에 반영하며, 매년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018년 광주전남연구원은 76건의 과제(연구원 1인당 2건, 수탁과제 및 보조사업 제외)를 수행했으며, 이는 대구경북연구원 116건(연구원 1인당 2.14건), 전북연구원 84건(연구원 1인당 3.36건)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 출연금 규모는 56억원으로, 대구경북(77억원)보다 작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통합 출범 4년째를 맞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질 높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라며 "연구 개선 방안만이 아니라 연구원 전체의 발전방안도 마련해 광주·전남의 상생과 미래 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6일 광주시청 앞 디자이너 맨디니의 조형물 위 둥지 주변에 까치가 앉아 있다.

고가 예술품에 까치집…길조? 작품 훼손?
광주시청앞 광장 지난달 숨진 맨디니 작품에 둥지

광주시청 광장에 설치된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맨디니 작품 위에 최근 까치가 집을 지었다. 이에 "까치가 둥지를 지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속설 때문에 광주시의 현안 사업들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도 고가의 예술 작품이 파손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시청 광장에 설치된 높이 16m, 지름 10m 크기의 '미래도시 광주-기원'이라는 대형 조형물 위에 최근 까치가 집을 지었다.

통상 까치는 마을 근처 큰 나무 위에 마른가지를 모아 둥근 모양으로 둥지를 짓고 봄에 알을 낳는데 자동차와 사람의 이동이 잦은 도심 한 복판에 둥지를 틀어 광주시 관계자들이 '길조'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이 까치집을 발견한 공무원들은 "집 앞 나무에 까치가 둥지를 틀면 행운이 깃든다는 말처럼 광주형일자리가 잘 풀리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하는 등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천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이 까치의 배설물 등으로 오염될 우려도 낳고 있다. 이 조형물은 지난달 숨을 거둔 알렉산드로 맨디니 작품으로, 국내 모 기업이 제작비 7억5000만원을 전액 지원했다. 초대형 모빌작으로, 시간에 따라 조명이 변한다.

고가의 작품이다보니, 천을 교체하는데만 1회당 1300만원씩 연간 4차례 천갈이에 무려 5000만원 이상이 들어 지난 2010년부터 천 교체를 두 차례로 줄였다가 현재는 1년에 한 번만 천을 갈고 있다.

조형물 특성상 눈·비가 몰아치거나 강풍이 불 때면 붕괴나 훼손을 막기 위해 기계작업을 통해 작품을 지면에 맞닿을 정도로 바짝 눕히는데, 알을 품고 있는 까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작품이 고가이다 보니, 까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목포·신안서 열린다

개최 장소 최종 확정
주요행사 삼학도 일원서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8월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 장소가 목포시와 신안군으로 확정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서류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공동 개최지로 목포시와 신안군을 최종 선정했다. 주요 행사 장소는 목포 삼학도 일원이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개최 신청한 것이 지역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시·군의 행사 예산 확보 노력과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특히 목포는 서남해안 섬의 관문이고, 신안군은 전국의 섬 가운데 25%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전남의 섬 중 40%를 차지할 정도로 섬으로 이뤄진 지자체다.

'섬의 날' 행사는 국가 기념행사를 비롯한 섬 특산물 전시회(홍보관 운영), 섬 국제 학술대회, 섬 민속공연 등 다양한 학술·문화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세계마당 페스티벌, 국제파워보트대회, 증도 섬 행복 바다축제 등을 '섬의 날' 행사 주간에 개최해 시너지효과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목포시, 신안군은 성공적인 섬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 TF팀을 구성해 세부 행사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심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의 날 기념행사가 섬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도록 알차고 의미있는 콘텐츠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서남해안권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전남을 명실상부한 섬의 수도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섬의 날'은 미래의 보고(寶庫)인 섬의 가치를 알리고 그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새롭게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8월은 섬 방문객이 가장 많은 여름 휴가철인데다 8이라는 숫자가 섬의 무한한 발전가능성(8=∞)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8월 8일로 확정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4월 1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제5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74명을 오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광주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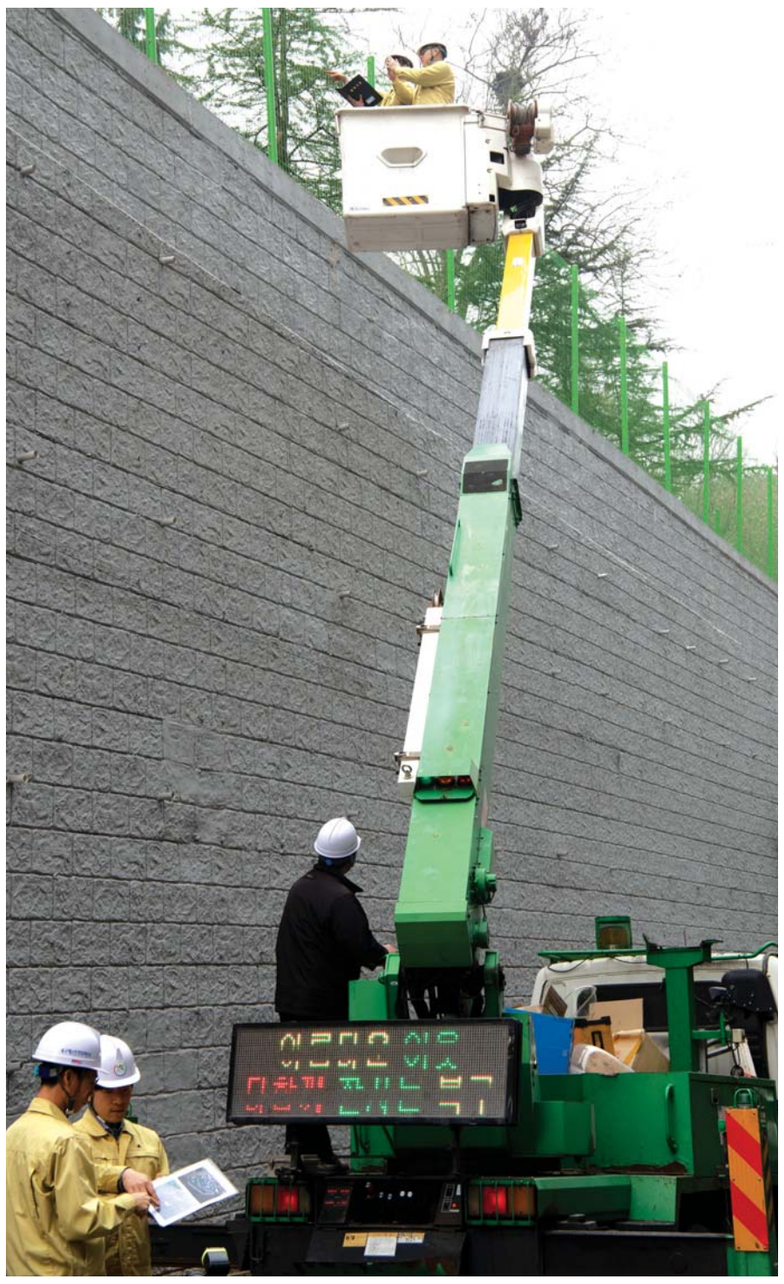
제5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8명, 위촉직 위원 92명 등 총 100명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74명을 공모하고 나머지 18명을 전문가, 사회적 약자, 시의회 추천 등으로 채운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제출, 제안사업 심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 개최 등 예산편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가 광주시에 있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다.

참가 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해빙기 급경사 안전점검 해빙기가 다가옴에 따라 6일 북구청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 직원들이 동림동의 급경사지역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최초 발주공사 정보 공개

1000만원 이상 1만107건
주민 알권리·입찰 공정기회 제공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다양한 정보가 유관기관과 일반에게 공개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건설공사 입찰 참여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 도·시군 건설공사 자료를 제공한다.

공개되는 건설 정보는 올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 발주 계획중인 1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신규·장기공사 포함) 총 1만107건, 2조 6003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전남도 발주 물량은 615건 4033억여원(16%), 시·군 발주 물량은 9492건 2조1969억원이다. 사업별로 공사는 7801건에 2조 3044억원이고, 용역은 2306건에 2958억원이다. 특히 신규 건설물량이 7503건에 1조 7849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건설업체들이 궁금해하는 발주 시기와 공사명, 공사종류, 발주 금액, 발주 부서, 전화 번호 등이다. 자료를 보면 어떤 사업을 언제,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이들 공사와 관련된 발주정보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전남도 누리집에도 게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